

# '500년 전통' 해남 북평면 용줄다리기 행사 재현된다

### 연산군 일기·동국세시기 등에 기록...풍어·풍년 등 기원



해남군은 오는 28일 북평면 힐링공원에서 500년 전통의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줄다리는 북평면 남창마을 일대에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 열리고 있다.

해남군 북평면에서 500년 전통의 용줄다리기 행사가 재현된다. 해남군은 오는 28일 북평면 힐링공원에서 '제9회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길이 25m, 두께 50cm로 무게만 10톤에 달하는 대형 용줄을 잡고 아드림줄과 우드림줄로 나뉘어 힘을 겨루는 북평 용줄다리는 연산군(1476~1506) 일기와 동국세시기 등

북평용줄다리기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아드림이 승리하면 풍어, 남성을 상징하는 우드림이 승리하면 풍년이 든다고 알려져 매년 농사를 점칠 수 있다는 유래도 전해져 오고 있다.

500년 가까이 이어오던 용줄다리는 한국전쟁 이후 40여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009년 남창마을다리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재현되면서 해남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최우수 농촌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 행사는 북평면 22개 마을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남창 오일 시장에서 출발하는 아드림줄과 북평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 우드림줄이 시가행진을 마친 후 북평힐링공원에 집결해 용줄다리기 재현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 연날리기, 소원지 쓰기, 난타와 풍물놀이 등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으며, 축제의 모든 참가자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인정나눔과 달집 태우기, 강강술래로 하나되는 대동한바탕도 펼쳐질 예정이다.

에 기록이 전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북평면 남창마을 일원에서 정월 대보름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에 인접한 북평면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위해 대형 용줄을 이용해 용줄다리를 하는 전통이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서남권 청소년축제' 목포 개최...경연대회·체험 등 다양

### 내일 목포항구축제와 연계 원도심 로데오광장서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하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정과 끼를 표출하는 '제15회 서남권 청소년축제'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원도심 로데오광장(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고, 주인공인 청소년이 주축이 돼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청소년들의 젊음과 열정, 목포항구축제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경연대회 본선진출 18개팀(댄스, 밴드, 보컬)의 공연 및 청소년 동아리 체험, 청소년기관 소개 등 5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된다.

또 청소년아울림마당, 진로 관련 부스를 체험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드림런닝 맨 코스프레 공연 캐리커처 과학체험, 뷰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 최정석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청소년에게 진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진



목포시는 '제15회 서남권 청소년축제'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원도심 로데오광장(차 없는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청소년축제.

로와 나눔, 문화가 공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곡성군, 귀농귀촌 전원생활 2차 체험교육 진행

### 오늘부터 이틀간 1박2일 수도권 희망자 22명 대상

곡성군은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에 대한 사전지식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귀농귀촌 희망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원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원생활 체험교육은 강의실에서 학습하던 간접적인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귀농귀촌하여 우리군에 정착한 선배 귀농귀촌인 11명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농촌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으로 24시간을 오롯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일도 체험하고 선배 귀농귀촌인과 대화를 함으로서 다수의 예비 귀농귀촌인

이 생각하는 농촌생활의 막연한 두려움이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체험교육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영암군, 귀농귀촌인 창업센터 '서울농장' 사업 선정

### 사업비 5억 지원...미암면 호포리 폐교 리모델링



지난 10월 10일 서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서울농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영암군이 확정되었다.

영암군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5억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안정된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시민 힐링체험을 통해 도농 상생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와 영암군이 협력하여 서울농장 조성사업을 추진 및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대상지는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에 위치한 폐교인 미암서초등학교로 운동장 및 건물 7동을 (학교부지 17,797㎡, 건물

면적 1,568㎡)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세미나실, 체험시설(기숙형), 실습농장 등의 조성을 통하여 귀농을 꿈꾸는 서울시민 및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맞춤형 창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영암군은 지난 9월 영암교육지원청에 학교부지 매입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농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건물 리모델링 예산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영암군에 귀농 인구가 매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귀농인구는

1,342세대에 2,280명으로 매년 평균 250여세대가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귀농인구의 증가는 곧 인구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영암군에 새로운 인구유입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군민들은 이번 사업 성과를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암서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 활용 등으로 주변환경이 밝아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서울농장 조성은 영암군이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농촌 인구감소를 잠재워 우리지역에 인구 유입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으로 영암군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강원훈 기자

##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활용 농업인 급증

### 38종 560여대 농기계 보유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3분기 실적으로 4,633대를 임대하였고, 3,952명의 농업인이 6,521일을 사용하여 임대료 7천977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했으며, 2016년 동 분기 대비 평균 28% 증가한 결과를 보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서부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기종은 씨의 중간물떼기 시기에 고랑을 만들어 주는 승용형 배토기가 인기 있었으며, 유류농자에 콩, 팥

등을 파종하기 위한 파종기를 인차하여 농작업 생력화에 기여하였고, 3분기 시중, 신북, 도포, 영암 등에서는 파수원 제조작업에 승용예초기가, 콩, 무, 배추 등의 밭작물 파종을 위한 파종기 사용이 두드러지게 급증하였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 37종 460여대의 임대농기계로 운영중이었으나, 3분기까지 임대수가 높은 승용예초기, 배토기, 퇴비살포기 등 100여대를 추가 구입하여 38종 560여대를 활용하고 있다.

영암=강원훈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